

## 이범세 학형(1933-2019)을 추모하며

송용덕(63)

우리 63년 동기 이범세 학형께서 지난 12월 21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형은 Warren, Ohio 에서 인턴을 저와 같이하시고 레지던트 training 을 마치신후 Portsmouth, Ohio 에서 Medical Practice 를 같이하신 분입니다.

34년간 저희 부부와 동고동락을 하셨고 항상 웃음과 친절로 환자들을 돌보시어 그들로부터 많은 감사와 존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주말이면 저희 부부와 넷이서 골프를 즐기셨습니다. Photography 에도 취미와 자질이 많으시고 그림을 그리기를 매우 좋아 하셨습니다. 이형이 그려 놓으신 풍경화는 카메라로 찍어놓은 사진과 거의 흡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항상 정원을 예쁘게 가꾸셔서 정원사를 능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모이를 여기저기 뿌려 주어서 많은 새들이 모여와 내는 소리를 들으시며 이형은 이 낙원같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극락 생활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이제 유명을 달리 하시어 가족친지를 뒤로 하시고 돌아가시니 섭섭함과 그리움이 가득하여 허탈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